



1

‘장항습지’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경기도 고양시의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01번째로 가입했다.

람사르 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가치가 있다고 협약 사무국에서 인정한 곳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71개 국가에 총 2천421곳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다.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이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후 총 24곳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다.

한강하구에 있는 장항습지에는 저어새,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조류 7종)을 포함해 총 427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환경부 소관 람사르 습지 17곳 중 우포늪(8천652km²) 다음으로 규모(5천956km²)가 크다. 대륙 간 이동 철새 중간 기착지이자 서식지로 매년 3만여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다.

장항습지는 한강 강변을 따라 7.6km 정도 이어진다. 폭은 600여m로, 면적은 5.95km²다. 전국의 내륙 습지 중 창녕 우포늪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군락은 전국 최대 규모다. 말뚝계와 나무가 서로 돕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을 이루며 공존한다. 말뚝계는 천적인 철새를 피하려고 버드나무 숲속에서 나무 주변에 30~40cm 깊이 구멍을 파고 산다. 말뚝계 배설물이 거름 역할을 하고, 파 놓은 구멍이 나무가 뿌리 호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우거진 숲을 이뤘다. 장항습지는 총 1천여종의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 공간이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저어새와 흰꼬리수리 등 천연기념물이 노닐고, 큰기러기와 붉은발말뚝계 등 멸종위기 야생



2

1 장항습지 말뚝계
2 장항습지 전경
3 한강변 군 간이초소
4 장항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생물 30여 종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는 대륙을 넘나드는 약 3만 마리 새들이 떼지어 이곳을 찾는다.

장항습지가 철새들의 쉼터가 된 것은 기수(汽水)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게 되고 염분 농도가 각기 달라 습지별로 생물종 분포가 다양하다.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종류도 많아 철새들의 중간 쉼터로 제격이다. 고양시가 철새 먹을거리 관리에 노력한 점도 한몫했다. 장항습지의 논 68만여m²에 매년 벳짚을 남겨두고, 이 중 6만m²에선 아예 벼를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연간 4만kg가량의 벼를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셈이다.

국내에는 순천만 등 세계적 습지가 있다. 장항습지의 장점은 수도권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철 3호선 마두역에서 차로 7분 정도 거리에 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한 자전거길을 따라가도 장항습지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

탐방을 하려면 사전에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52)에 예약해야 한다. 평일 오후 1시와 3시에 탐방이 가능하다. 5km 구간을 돌아보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장항습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덕분에 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다. 2008년 12월 고양시와 육군이 철책 제거 사업에 나섰고, 2018년 6월 이곳에 주둔하던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관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매설한 지뢰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어 대다수 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요즘도 홍수나 폭우로 습지가 범람할 경우 지뢰 수색 작업을 거친 뒤 탐방로를 개방한다.

고양시는 장항습지를 통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버드나무 숲에 있는 물골 33개를 복원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물골은 습지 안으로 물이 흘러 육지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현재 2개 있는 철새 관람대도 추가로 조성한다. 47억여원을 투입해 장항습지센터를 짓고 있다. 내년 12월 완공하면, 관람객을 대상으로 습지 견학과 교육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장항습지를 한강생태공원, 호수공원 등 주요 관광 자원과 연결하고, 생태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방침”이라며 “김포나 강화 등 다른 지역 습지와 함께 공동 보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3



4

어서와 고양대덕생태공원은 처음이지?

평화자전거와 함께하는
고양대덕생태공원 평화라이딩



문의 전화 | 031-909-9000 프로그램 예약 | www.goyang.go.kr ▶ 고양시 통합예약

사람과 정의로운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